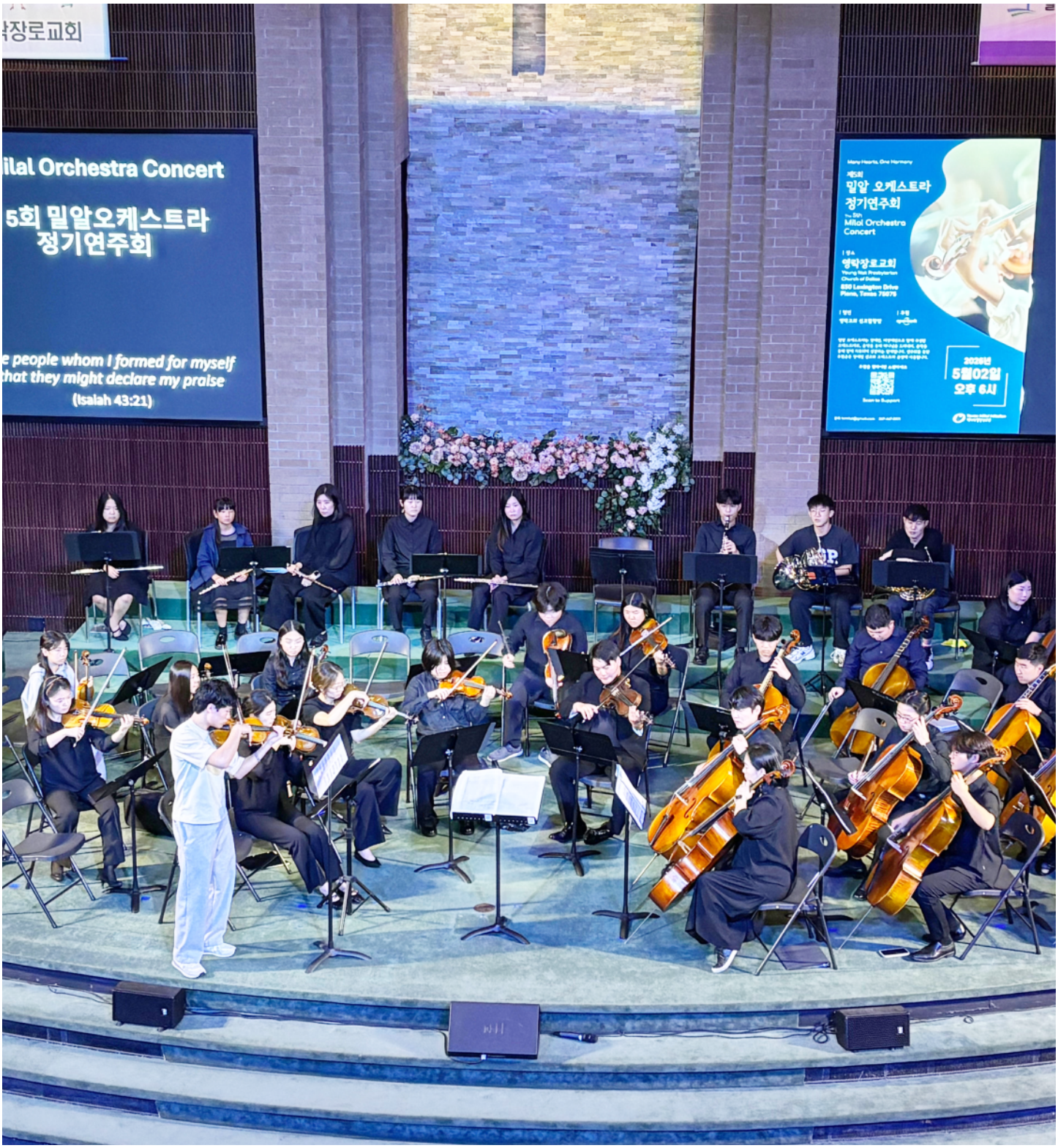
MILAL & WORLD 06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표지사진

지난 5월2일에 열린 텍사스밀알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에서 장애인들과 일반인 연주자들이 서로 어우러져 감동의 선율을 연출하고 있다.

02 | 칼럼
내가 너희를 집으로 데려가리라

04 | 감동의 선율
텍사스밀알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06 | 2026년 기획 연재: 밀알의 장애인신학 이야기(6)
예수님은 왜 자꾸 멈추어 서셨는가?

08 | 신앙 단상
촛불의 신비: 나눌수록 커지는 축복

10 | 기나긴 삶과 신앙의 여정
잃어버렸던 소망의 빛을 밀알에서 보았습니다 (상)

12 | 유쾌한 하루
섬김으로 하나 된 봄날의 기억

14 | 2026 뉴저지밀알 장애인의날 간증
네덜란드에서 발견한 가장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튤립

16 | 세계의 밀알
단 한 알의 밀알이 만든 희망의 쉼터, 파라과이밀알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벤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304호 | 2026년 6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장영준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벤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칼럼

내가 너희를 집으로 데려가리라
- 밀알이 믿고 선포하는 복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집으로 데려가리라"는 아름다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 '집'은 어디이며, 주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이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떠날 것이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요한복음 3:16).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셨으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은 지고한 영광의 자리,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주님의 떠나심은 비극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신뢰해야 함을 뜻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넘치는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끊임없는 교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자신 또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곧 아버지의 우편에 말이다.”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기 위해 죽어 장사되셔야 했고, 승천하기 위해 살아나셔야 했으며, 아버지 우편에 앉기 위해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그것들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장사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들려 올라가 아버지 우편에 앉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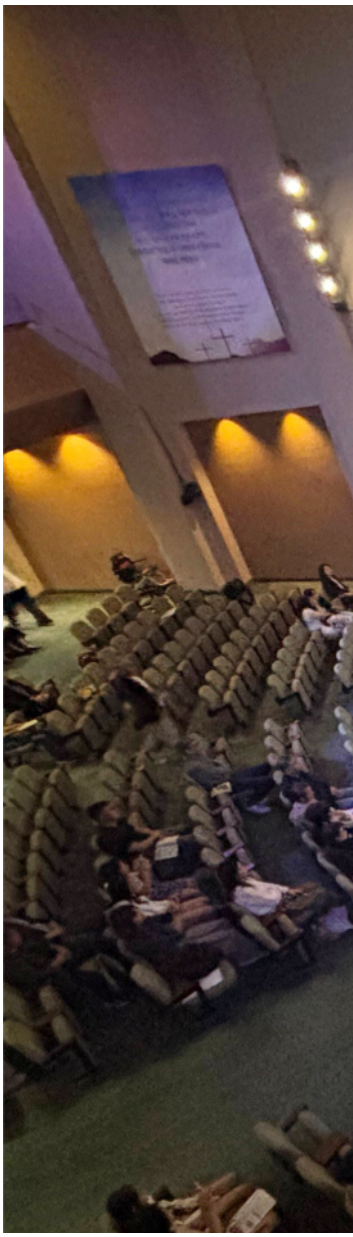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늘에서 오셔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따름으로써, 땅 위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거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분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지만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으나 주님의 생명을 받아 생명이 되어갑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의 승리를 받아 이기는 자가 되어갑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이십니까! 이 얼마나 경이로운 복음입니까! 이것이 복음이기에 장애를 가진 이들 또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 밀알은 반드시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글 | **이상현 목사** (밴쿠버밀알)



텍사스밀알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지난 5월2일, 달라스 영락장로교회에서 제5회 밀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한 지도 5년째가 되었고, 그만큼의 연륜을 갖춘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영락교회의 '헤레스 선교중창단'의 협연으로 이뤄진 이번 연주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인형'의 Waltz of the Flowers를 시작으로 총 7곡(Jesus loves me, Theme from Schindler's List, Hallelujah, Living Hope,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 The Heavens Are Telling)을 연주했습니다.

장애인 연주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로 참여하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 즉 어떤 이는 3곡, 어떤 이는 4곡, 어떤 이는 모든 곡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음을 더해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곡 하나하나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청중들은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많은 분들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음악이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해봅니다.

이번 제5회 정기연주회는 'Many hearts, One harmony'라는 밀알 오케스트라의 슬로건을 내걸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음을 연주하더라도 그 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서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 전해지길 소망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연약해 보이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연주회 장소를 제공해주신 영락교회에서는 연주가 끝난 후 리셉션을 위한 다과를 정성스레 준비해주어 즐거운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단원들의 간식을 준비해주신 분도 계셨고, 다른 주에서 연주를 돕기 위해 오신 연주자 분도 있었습니다. 연주자의 그림을 구매해주신 분도 있어서 그 친구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었던 풍성한 연주회였습니다. 함께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지만, 오케스트라가 선교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 | **텍사스밀알 홍보부**


교회를 향하여
교회
1. Walts of the flowers
by Tchaikovsky
Milal Orchestra







예수님은 왜 자꾸 멈추어 서셨는가?

장애의 자리에서 다시 읽는 예수님의 사역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상한 장면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자꾸 멈추어 서십니다. 사람들이 급히 지나가려는 자리에서 발걸음을 늦추시고,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앞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때로는 제자들조차 답답해 할 만큼 천천히 움직이십니다.

길을 가다가 부르짖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멈추십니다.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윽박지르던 사람에게 오히려 말을 걸어 주십니다.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여겨졌던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대부분, 누군가를 고쳐 주는 사건 이전에 먼저 '함께 머무는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흔히 기적과 치유를 먼저 떠올립니다. 실제로 복음서에는 많은 치유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읽어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단순히 몸의 변화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 없는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했으며, 어떤 사람은 사회로부터 이미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몸의 상태를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와 연결해서 이해하던 시대였습니다. 장애와 질병은 쉽게 죄와 연결되었고, 공동체 바깥으로 밀려나는 이유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원인을 설명하는 대신,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설명보다 만남이 먼저였고, 판단보다 가까이 가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려 할 때 종종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왜 그런지 알고 싶어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하려 합니다. 장애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인과 해결을 먼저 떠올립니다.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복음서 속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문제처럼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급히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삶 곁에 머무르셨습니다. 어떤 날은 그 머무름 자체가 이미 치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잘 진행된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는 날이 있습니다. 집중은 자주 흐트러지고 설명이 반복되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공동체는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갑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빠르게 정리하거나 효율적으로 움직이기보다 먼저 곁에 머무르셨던 방식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치유를 결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 보면 치유 이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시선'이었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던 사람을 바라보시는 시선,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가시는 움직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역은 한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잊혀졌던 존재를 다시 관계 안으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기능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는지,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쩌면 복음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 삶 곁에 함께 남아 있는 일, 설명되지 않는 시간을 함께 견디는 일, 떠나지 않는 일이 우리 이웃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때로 아주 거대한 기적보다도, 그런 방식 안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꾸 멈추어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한 사람 앞에서 걸음을 늦추십니다. 그리고 그 느린 걸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지를 보여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더 능숙하게 돕는 방법이 아니라, 쉽게 지나치지 않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글 | **김정기 목사** (북가주밀알 단장)





| 신앙 단상

촛불의 신비: 나눌수록 커지는 축복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다 한번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정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화려한 불빛이 한 순간에 소멸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양초 하나를 찾아 불을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전등의 밝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불빛이었지만, 촛불의 고요한 떨림을 가만히 응시하며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나간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양초의 불꽃을 옆에 있는 다른 초에 옮겨 붙인다고 해서 처음 그 불꽃이 작아질까 하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원래의 불꽃은 그 모양 그대로, 그 밝기 그대로 활활 타오릅니다. 백 번을 다른 양초에 옮겨 붙여도 처음 그 빛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불을 나눠 받은 초들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불꽃의 표정들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초는 굵고 튼튼한 몸집 덕분에 불꽃이 아주 기운차게 피어 오르는 반면, 어떤 작은 초는 자신의 가느다란 체구만큼이나 조심스럽고 가냘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의 크기가 어떠하든, 그 초들이 한데 모여 빚어내는 풍경은 무엇보다 따스하고 장엄했습니다. 큰 촛불은 큰 대로, 작은 촛불은 작은 대로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힘을 합쳐 방 안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세도 이 양초의 원리와 참으로 닮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하늘의 복'을 갈급한 누군가에게 나누어준다고 해서 내게 허락된 몫이 줄어드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신비로운 하늘의 산술은 우리

가 그 복을 퍼내고 나눌수록 그 샘물이 더 맑고 풍성하게 솟아나게 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는 쓰면 쓸수록 바닥이 보이고 채울수록 더 큰 갈증을 부르지만, 하늘의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향기가 더 진해지는 법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생명의 불꽃을 받아내는 사람들의 마음 그릇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을 준비한 이는 그 복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성취해낼 것이며, 소박하고 작은 그릇을 가진 이는 그 나름의 귀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의 크기나 그릇의 겉모양을 두고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을 내며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그 순전한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남겨진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충성한 그 진심을 칭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한 작은 소년이 기꺼이 바친 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님이 축사로 그 양이 절대 소진됨 없이 5천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 광주리나 남았다는 '오병이어의 기사' 이야기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은, 내가 받은 이 귀한 하늘의 복을 아끼거나 감추지 말고, 나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최대한 풍성하고 넉넉하게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요즘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포화와 정치적 혼란, 높은 물가고로 인해 세상이 참으로 어둡고 삶의 무게가 버겁다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작은 양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건네주신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소망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환히 비추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글 | **이준수 목사** (남가주밀알 홍보팀장, <밀알&세계> 편집담당)



잃어버렸던 소망의 빛을 밀알에서 보았습니다 (상)

저는 뉴욕 IN2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며, 뉴욕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고 있는 '황예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라며, 제 나름의 꿈도, 목표의식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세상보다 한 박자 늦게 출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완벽함을 좇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방패였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제 안은 생존을 향해 긴장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이유도, 목적도 없었습니다.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죽음만은 유난히 두려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신이나 종교는 저에게 멀고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제 통제를 벗어나 흘러갔고, 제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들과 예상치 못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래전부터 조용히 제 삶을 찾아오고 있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갑작스런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저를 둘러쌌고, 순식간에 총들이 겨눠졌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합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의 냄새, 붉고 푸른 불빛, 끊임없이 들리던 경찰과 구급대원의 목소리만이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범인들은 체포되었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무렵 친구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기 암, 우울증과 약물중독, 음주운전 사고… 그렇게 그들의 삶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왜 그들은 떠나고, 나는 남겨졌는가?" 이 질문은 오래도록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과 쾌락에 기대며 그 답을 잊으려 했습니다. 강도 사건에서 살아남았지만, 제 안에는 삶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삶의 방향을 바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사역하던 한 장애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소아마비와 암 투병,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서둘러 바꾸려 하지 않았고, 쉽게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고, 제가 무너진 자리에서 함께 머물러 주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던 순간에는 대신 기도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살아남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종교와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죽음 너머의 소망을 이해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다 스물 두살 때, 어머니의 큰 교통사고로 삶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계획은 멈췄고, 가족 모두의 삶은 송두리채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매일 지켜보는 일은 버거웠지만, 살아내기 위해 슬퍼할 시간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속에서 세상은 점점 더 불공평하게 느껴졌습니다. 교회에 요청한 도움의 손길은 아주 차갑고 잔인하게 돌아왔습니다. 믿었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저를 더 깊은 분노와 우울, 불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약점은 이해받기보다 이용되었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닫고 떠났습니다. 교회도, 사람도, 믿음도…

하지만 무너진 마음은 어디를 가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신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상태만 보고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견디며, 누구보다 깊은 공감으로 저의 아픔을 들어주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그와의 시간은 다시 제 삶에 기도라는 숨결을 불어넣어 주었고, 살아낼 힘을 조용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치유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빈 교회에 앉아 신음처럼 새어 나오는 숨소리만 남은 채로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상처가 제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저에게 와주세요!" 그 기도는 살고 싶었던 저의 절박한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이후에도 삶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교통사고, 어머니의 또다른 사고,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의 무게 속에서 떠나간 관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암 진단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벗어날 틈 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은 저의 삶을 불운이라 말했습니다. 저는 산산조각난 유리 위를 맨발로 걷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의 시간은 공기 섞인 희미한 소리만으로 채워졌습니다. 끝없는 병원 생활 속에서 제 몸은 완전히 망가져 갔고, 몸과 더불어 성격도, 감정도, 인간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고, 어떤 날은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가족을 도와줄 수 없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 영혼 위로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희망은 공기처럼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었고, 그렇게 제 암 투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였습니다. 뉴욕 거리를 걷고, 센트럴파크와 아파트 옥상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홀로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집 벽에는 성경 구절들을 붙여 두고, 매일 로마서 8장을 붙잡듯 살아갔습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신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숨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서서히 저게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매주 장애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밀알선교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들을 돕는다는 생각에, 만약 내게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곁에 있어 주길 바랄까 고민하며,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 스승이 되어 주고 있었다는 것을…



글 | **황예지**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유쾌한 하루

섬김으로 하나 된 봄날의 기억

지난 4월 25일, 밴쿠버밀알은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가까운 파크에서 진행된 이번 나들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함께 느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함께한 사랑의교실 활동과 비슷했지만, 이번 봄소풍에서는 특히 밀알러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손잡고 찬양을 부르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때, 서로 다른 모습과 배경을 가진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소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간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 자체로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특히 친구들 중 한 명이 비눗방울을 불었을 때, 햇빛과 겹쳐 반짝이며 공중에 퍼지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워 그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번 봄소풍에서의 제 역할은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바라보








며, 햇빛 아래에서 반짝이며 살아 숨쉬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빛과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받은 작은 은혜처럼 느껴졌고, 친구들의 예쁜 모습을 프레임 안에 담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자연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누는 작은 웃음과 눈맞춤, 그리고 함께하는 순간 하나하나가 큰 기쁨이 되었고,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며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를 떠올리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기다려 주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거리가 좁혀졌고, 함께하는 기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 덥지 않은 날씨, 초록빛 풍경 아래 모두가 함께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봄소풍은 단순한 소풍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고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글 | **Chaeryn Lee** (밴쿠버밀알러 2025-09)

주: '밀알러'는 밴쿠버밀알의 자원봉사자를 지칭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발견한 가장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튤립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2살이 된, 조금 특별한 아들을 키우는 엄마 왕형경 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비유한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아시나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건 어떤 느낌인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느낌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멋진 이탈리아 여행을 꿈꾸며 오랫동안 준비하고 비행기에 올랐는데, 막상 내리고 보니 안내원이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화려한 로마와 베니스의 운하가 있는 이탈리아를 기대했던 부모에게 네덜란드는 당혹감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며 차츰 주위를 둘러보면 네덜란드에는, 이탈리아에 없는 소박한 튤립이 있고 아름다운 풍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저와 남편에게 첫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엄마처럼 이탈리아를 상상하며 아이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저를 '네덜란드'라는 낯선 땅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앤드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홀이 있어서 생후 4개월 만에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래 아이들보다 걸음마를 시작한 시기도 늦은 편이었습니다. 18개월에 걷기 시작했고 말도 많이 늦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계시는 분들께서 원래 남자아이들이 조금 늦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에 많은 걱정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2살 반이 되었을 때 소아과 선생님께서 앤드류의 전체적인 발달 사항을 검사해 보기를 권유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는 저의 질문에 보통의 아이들은 이름을 부르면 쳐다본다든가 반응을 하는데 앤드류는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병원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고 많은 것을 검색하던 중 '자폐 스펙트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스로 아닐 거라며 의사와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달리 의사는 아이를 관찰한 지 1시간 만에 자폐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를 보며 내가 이탈리아가 아닌 네덜란드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겠다. 여기서 낙심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 엄마인 내가 강해져야 이 아이를 지키고 이탈리아로 데려갈 수 있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고 학교도 다니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가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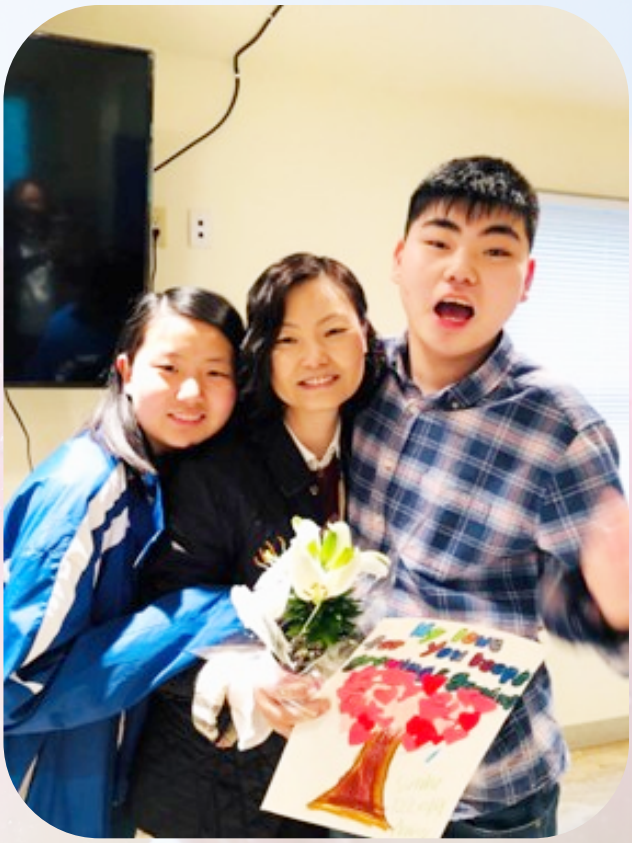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등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치유 사역이라는 말에 그저 아이를 제발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을 나는 잘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대상에게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 그날 이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앤드류의 치료를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듯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저를, 하나님은 제 안의 교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저희 가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며, 특별히 뉴저지밀알선교단과의 만남은 네덜란드에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튤립과 같았습니다.

앤드류가 어려서부터 다니기 시작한 밀알의 방과 후 학교, 토요 사랑의교실, 여름캠프 등 모든 프로그램을 앤드류는 너무 좋아하고, 밀알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밀알에서 앤드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별로 대우받는 것이 아닌, 사랑받는 한 청년으로 대우받고 있고, 저 또한 밀알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홀로 걷는 줄 알았던 이 길에 든든한 동역자를 보내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성인이 된 앤드류는 이제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찬양합니다. 저와 남편이 건강하게 앤드류 곁을 오래오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앤드류가 훗날 혼자서도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를,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보호 아래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래 듣기와 부르기 좋아하는 앤드류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세상에 기쁨을 전하고 작은 기술이라도 배워서 사회에 당당한 일원이 되기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이를 저희 가정에 맡겨 주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소통이 조금 서툴고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특별한 선물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리라.” 저는 언젠가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 만날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앤드류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꿈꿉니다. 그 찬란한 약속이 있기에 저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 **왕형경** (뉴저지밀알, 앤드류 어머니)



단 한 알의 밀알이 만든 희망의 쉼터, 파라과이밀알

남아메리카에 있는 파라과이(Paraguay)는 1년 중 약 10개월이 여름과 같은 날씨입니다. 그중 약 30일 정도는 기온이 섭씨 42도에서 44도까지 오르는 매우 뜨거운 날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봄에는 하루 24시간 안에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는 듯한 날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파라과이 사람들은 따뜻한 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들로,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보여주는 환대는 많은 이들에게 파라과이를 마음 편안한 곳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파라과이의 삶의 현실은 기후 만큼이나 쉽지 않습니다. 보건, 교육,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파라과이밀알(Milal Paraguay)'은 201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치료도, 교육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집 안에만 머물러 있던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동이 어렵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부모님이 아이들을 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에 데려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밀알은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집 밖에서 가장 오래 머물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



들은 서로 어울려 놀고,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배우며 성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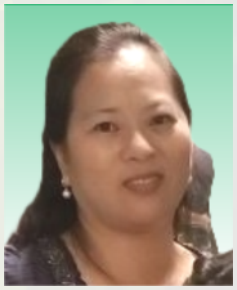
또한 언어치료, 작업치료, 심리·학습치료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모든 활동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장기간의 격리로 인해 아이들의 발달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치료를 다시 시작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 치료사가 아이들을 돕기 위해 다시 밀알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또한 때마침 현재 파라과이밀알의 이사장이신 남미교회 담임목사님께서 교회 선교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는 그곳에서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파라과이밀알은 이전 장소 근처의 새로운 건물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어치료사, 심리·학습치료사, 심리운동치료사, 심리상담사 등 8명의 전문 인력이 함께하고 있으며, 모두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밀알을 찾아오는 50명의 장애 아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아이들은 밀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찬양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매주 필요한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던 것은 후원자분들의 사랑과 헌신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 알의 밀알 같은 작은 나눔들이 모여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희망의 쉼터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밀알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글 | **강미숙 단장** (파라과이밀알)



남가주

2026 밀알 서부지역 연합 사랑의캠프 개최

'2026 밀알 서부지역 연합 사랑의캠프'가 6월25일(목)~27일(토)까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Campus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사랑의캠프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회'에 맞춰 'Milal World Cup'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For God so loved the world)"이란 요한복음 3:16 말씀을 중심으로, 장애인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월드컵 형식의 축구 경기 및 여러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년처럼 성찬식과 세족식을 거행하며 장애, 비장애를 초월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동등한 은혜를 나누고자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캠프 펀드레이징을 위해 맛있는 멕시코 치아파스 커피 (200g/$10), 커피방향제 기프트세트($15), 커피방향제(6 pouches/box, $27) 비프저키($35), 최고급 참기름($33등 물품판매도 진행되고 있으니 필요한 물품이 있으시면 남가주밀알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Tel: 562-229-0001, Email: admin@milalsca.org).

LA 화요예배 (5월)

- 5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함께 세워가는 밀알공동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전성도 전도사님이, 특송은 우에하라 인주 사모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에스더 최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5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12일: 충현선교교회 GSF에서 예배를 섬겨주셨습니다. 허의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대표기도, 특송, 저녁 친교 모두 충현선교교회 GSF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 19일: 조영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이영주 사모님이, 특송은 강문구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 26일: LA, OC 연합으로 Zoom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OC 목요예배 (5월)

- 7일: 이은철 목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제시카송 자매님이, 특송은 마이클림 형제 & 남윤정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밀사모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5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14일: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예배를 섬겨주셨습니다. 심상은 담임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대표기도는 채진숙 권사님(늘불꽃 부회장)이, 특송은 남선교회 중창단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 역시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 28일: 주님의빛교회 별빛순에서 예배를 섬겨주셨습니다. 조은성 동사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대표기도, 특송, 저녁 친교 모두 주님의빛교회 별빛순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교실 (5월)

2일: Irvine 브랜치에서는 아트 크래프트 시간에 종이배를 만들어 물에 띄워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만든 배를 보며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며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9일: OC 브랜치에서는 Team Relay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참가자들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달리고 응원하며 아름다운 햇살 아래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동심과 웃음이 가득한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16일: Love Festival 행사로 사랑의교실은 한 주 쉬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 교회를 통해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맛있는 음식, 예배를 함께하며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3일: Memorial Day 휴교

30일: LA 브랜치에서는 그동안 아트 봉사팀과 'InArt'가 함께 준비해 온 작품들을 전시하는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은 다과를 함께 나누며 그동안의 섬김과 수고에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제목

- 남가주밀알의 모든 사역을 형통하게 이끌어주시고,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애인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 밀알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LA화요모임, OC목요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 7개 브랜치가 은혜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밀알 가족들의 삶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은혜가운데 모든 필요가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 스탭들과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가운데 2026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 2026년도 밀알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6월25일(목)~27일(토)에 개최되는 '2026 사랑의캠프'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북가주

북가주밀알 가족 소풍

5월 16일 오전11시에 Sunnyvale에 있는 Fairwood Park에서 큰 잔치로 행복한 야외행사를 가졌습니다. 지역교회의 장애인 예배부서들을 초청하여 함께 교제하였고, 재밌는 게임과 보물찾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오랜만에 큰 웃음으로 하루를 함께 보내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Mercy & Peace'의 귀한 봉사자분들께서 맛있는 치킨을 현장에서 직접 튀겨서 특별한 소풍이 되었습니다. 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임마누엘장로교회 지역봉사부에서, 그리고 뉴비전교회의 아가페워십 장애인 예배부의 교사분들께서 함께 점심식사의 대부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모두 맛있게 점심을 나누었고, 봉사와 사랑의 섬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은혜를 채우는 귀한 방법인지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화요예배 (5월)

5일: 임마누엘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귀한 애찬을 준비해 주신 장애우 섬김팀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누리교회 유스로 구성된 앙상블 힐링하모니에서 함께 찬양과 특송으로 참여해 주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이클 허 형제님이 대표기도해 주셨고, 이승헌 목사님께서 룻기 1장으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12일: 뉴비전교회에 두번째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권사회 분들의 섬김으로 비빔밥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교제를 나누었고, '에바다 크로마하프 찬양단'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셔서 귀한 찬양과 특송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잔잔한 연주와 찬양으로 모두가 풍성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비전교회의 장애인예배 '아가페워십'의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며 감사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19일: 산호세 한인장로교회를 방문하여 풍성한 저녁식사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 드렸습니다. 한인장로교회 찬양단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였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6일: 세계선교침례교회의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귀한 애찬을 나누며 따뜻한 저녁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김정기 목사님의 설교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과 식사로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함께해 주신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호세 사랑의교실

- 5월 산호세 사랑의교실의 점심봉사로 산호세 영락교회, 세화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 미술과 음악 및 체육활동과 게임 등으로 지도해 주실 봉사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한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사랑의교실의 장소를 변함없이 제공해 주시는 새소망교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청년밀알 친구들이 손을 많이 움직이기에 좋은 것은 가위질과 풀칠 그리고 색칠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용을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미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위질 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색칠하고 선생님 말씀대로 풀칠해서 용의 머리와 꼬리 몸통을 연결해서 커다란 용을 만들었습니다.

커피 가루를 모아서 풀을 썩어 쫀듯하게 만들고 그것을 예쁜 틀에 찍어서 아름다운 커피 케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커피 케익을

만든 친구들은 전에 찰흙으로 만들었던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물감으로 색칠하고, 다음으로 성경 필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다 마친 후에는 자기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 필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밀알 소풍을 갔습니다. 모처럼 공원에 모여서 함께 하는 날이라 날씨가 좋기를 바랬지만, 우리 맘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이 덮였지만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갈수록 날씨가 추워지고 잠깐이지만 비까지 내렸습니다. 청년밀알 친구들이 감기에 들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다행이 아프지 않고 씩씩했습니다. 맛있는 바비큐와 여러가지 음식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신 Mercy & Peace에 감사를 드립니다. Art & Craft를 준비해오고 버디로 섬겨주신 새누리교회 청년들과 모든 발런티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압 여인 롯이 텅빈 나오미를 쫓았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휴지 심지를 이용해서 쌍안경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쌍안경을 쓰고 바라보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힘을 내어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다짐해봅니다.

성경말씀을 연필로 쓰지 않고, 잡지에 있는 글자를 찾아 오려서 붙여 보았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보다 힘이 들었지만 단어 하나하나 찾는 것, 알파벳 하나하나 찾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청년밀알 친구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광연 장로님(식수술준비), 장연화 자매님(재가장애인), 도한철 선교사님(루게릭), 로사자매 아버지(건강회복), 이은희 작가님(신장투석), 예진 어머니(회복), David Im어머니(고관절수술회복), 써니 집사님(건강회복)
- 화요예배를 통해 만나는 지역교회의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 공동체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토요 사랑의교실에 청년, 장년 봉사자들을 보내주시고, 매주 1:1 봉사자들이 부족하지 않고 늘 풍성한 사랑의교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사랑의교실에서 Art와 체육활동을 위해 봉사해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할 선생님들이 밀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밀알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평안과 위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밀알 스탭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섬김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이들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밀알의 새로운 헌신자들을 통해 새롭고 행복한 사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지역의 장애인 예배부서들이 교회의 본이 되게 하셔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나라를 살아가는 북가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사랑의캠프 봉사자가 충분히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경험이 나누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사랑의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운행하시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애틀

시애틀 사랑의교실

샬롬!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사랑의교실은 형제교회 넥스트 중고등부에서 오셔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장영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 장아련 사모님의 크래프트와 음악수업을 했습니다. 이날 점심은 시애틀 행복한교회 남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조셉이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교실 되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봉사자가 채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오후2:30까지 에드몬즈의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남성식 디렉터 425-361-9368)

시애틀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음악수업, 크래프트, 탈춤, 북클럽, 산책, 마트 장보기, 영화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Sparta's Pizza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외식하는 것이 좀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산책과 볼링을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SMA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타코마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장영준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고, 박현실 사모님이 음악수업을 해 주셨습니다.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서 정성으로 섬겨 주신 풍성한 점심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며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하며 서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현희가 수술을 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도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자 봉사자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많은 봉사자들로 인해 TMA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밀알의 사랑이야기(음악회)

6월 7일 주일 오후 5시에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서 '밀알의 사랑이야기(음악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두번째 시간이고요. 이 음악회는 밀알을 홍보하고, 이번 여름에 있을 밀알 사랑의캠프를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모두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밀알에 귀한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 매월 1회 SMA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낮은 울타리교회에.
- 매월 1회 사랑의교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형제교회, 시애틀온누리교회에.

알립니다

- 장영준 목사는 밀알선교단 설립 50주년 회의, 건강검진과 진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주일 오후12시에 있습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탈춤, 독서클럽,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오전 11~오후3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요가, 산책, 체육 등)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댄싱,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지원)
-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 수저, 넵킨, 물도 필요합니다)
- 매주 S.M.A(화) 와T.M.A(목) 성인장애인 예배와 활동 모임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20명)

기도제목

- 2026년에도 밀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 미주밀알 총단장직을 맡은 장영준 목사의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 주세요.
- 사랑의교실과 SMA & TMA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 SMA에 새로 오신 선생님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MA, TMA을 위하여
-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밴쿠버

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
밀알에서 친구들과 밀알봉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발룬티어(밀알러)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밴쿠버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는 예배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늘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단장 이상현 목사님은 4월 18일에는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골 5:15), 4월 25일에는 'Praise the Lord, O My Soul'(시 103:2), 5월 2일에는 'He will Bring Me Home'(요 14:1-3), 5월 9일에는 'Our Hope is Only Jesus'(빌 3:20-21)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함께걸음콘서트 공연 곡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 가사가 담긴 복음의 내용을 배워가며, 복음과 구원의 신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밀알러는 버디에게 설교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가르쳐주고, 말씀을 심화하는 활동시간을 가진 후, 성경암송과 점심식사를 합니다. 오후시간은 음악을 감상하는 랜선 음악여행과 체조로 시작, 소그룹활동을 통해 개별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는 베뉴 정리정돈과 리뷰 후 밀알러가 함께 친구들과 밀알선교사역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팀별로 사역과 봉사를 위한 미팅과 준비를 합니다.
사랑의교실 점심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8일 할렐루야교회(담임목사 이수영), 4월 25일 새문안교회(담임목사 김민우), 5월 2일 한교회(담임목사 한기현), 5월 9일 성산교회(담임목사 정윤달).

봄소풍
4월 25일에는 '타인헤드 파크'로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자연을 보면서 사람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재밌는 게임과 산책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문안교회가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회 함께걸음콘서트
지난 5월 24일 저녁 7시, 써리장로교회당에서 'The Dance of Life'를 주제로 열린 제9회 함께걸음콘서트는 위대한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모니아 앙상블 현악 오케스트라의 품격 있는 클래식 연주와 합창으로 구성된 콘서트에서 밴쿠버밀알 합창단은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 '주 선한 능력으로'와 'Yet Not I, But Through Christ In Me'를 노래하여, 주님이 구원의 영광과 희망을 전파했습니다. 스폰서와 도너로 콘서트와 밀알선교사역을 서포트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함께 진행한 투게더 굿즈 판매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콘서트에 오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 1일 단기선교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도, 따로 휴가를 내거나, 멀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단기선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밀알이 진행하는 사랑의 교실에 몇 시간 함께 하는 것으로 훌륭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문의, 604-339-4417 단장 이상현 목사).

밀알러(발룬티어) 리쿠르트
'Love in Action, Faith in Motion!' 밀알러로 함께할 발룬티어 신청 받습니다. 축복된 경험을 함께 하기 원하는 분들은 아래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밀알은 좋은 지원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훌륭한 봉사자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www.vancouvermilal.com > volunteer

밀알선교사역 나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밀알선교사역 및 장애인 선교에 관해 알기 원하거나 함께 할 교회, 기관 및 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604-339-4417). 밀알선교사역 나눔은 설교, 선교설명회, 선교박람회 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이트랜스퍼를 통하여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을 후원하시면 세금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영문이름, 포스탈코드를 포함한 주소,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 (연락처: giving@vancouvermilal.com)

기도제목
•밴쿠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가정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 안에 살도록.
•밀알가족들, 그리고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사역, 성령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시어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장애인선교를 위해 함께 하는 이들과 기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장애인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며, 그 증인으로 살게 하는 밀알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소서.
•썸머미션캠프(6월 25-30일), 7월 리더십 리트릿, 밀알러 소셜스, 재즈페스티벌 아웃팅, 밴쿠버밀알 25주년 감사예배(8월 8일), 하반기 사역준비, 굿즈프로젝트: 투게더, 밀알러프로젝트: '꿈너머 꿈'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단장 이상현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합니다.

텍사스

토요 사랑의교실 (4월)
오전 10시부터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후에는 설교중심으로 Bible study와 Art & Craft를 진행하고, 여러가지 신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점심을 먹고, Bible study와 Art & Craft를 스위치해서 진행한 후, 음악치료를 했습니다.
교회, 단체 및 개인들께서 재정과 음식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scape Bakery에서는 베이커리로 섬겨 주셨고, 4일에는 조이풀교회, 11일에는 소풍을 갔는데 바베큐로 라이트하우스교회가 섬겨 주셨습니다. 18일에는 참빛교회, 25일에는 뉴송교회에서 점심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에 점심봉사를 원하시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기 원하는 5세 이상 장애인들은 연락주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밀알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성료
지난 5월2일(토) 오후6시, 달라스 영락장로교회에서 제5회 밀알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마쳤습니다. 일곱 곡의 연주가 진행되었고, 연주자들은 기량에 맞게 2곡이나 3곡, 또는 전곡을 연주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지휘자와 모든 연주자, 자원봉사 스탭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밀알선교단 서부연합 사랑의캠프 참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LA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름캠프에 참여합니다. 이동간 안전과 캠프활동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여름성경학교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일시: 7월 6~10일 오전10:00~ 오후2:15
•장소: 한우리미션센터
•성경학교 참가비: $20
•참가자 대상: 모든 연령의 장애인
•자원봉사자: 1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과 안전을 위한 1:1 매칭 봉사, 봉사시간 부여, 매일 9:30-2:20 참여, 사전 봉사자교육 참여해야 함, 하루 이상 봉사 가능한 모든 분 환영
•문의: 텍사스밀알선교단

텍사스밀알 합창단원 모집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장애인,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문의: 267-467-5971, txmilal@gmail.com

텍사스밀알 오케스트라 6기 단원 모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장애인 인식 개선과 지역 선교를 같이할 15세 이상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바이올린, 비올라, 관악 및 퍼커션
•모집 일정: 7월 4일까지 신청 받음
•신청비: $30
•오디션 일정: 7월 11일
•신청문의: 밀알선교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267-467-5971, txmilal@gmail.com)

기도제목
•텍사스밀알선교단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다른 지역에 사랑의교실 사역을 확대하길 원합니다. 합당한 만남을 주장하소서.
•봉사자들이 다음 세대 리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중심 언어, 미술, 운동, 행동치료 등의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게 하시어 밀알 토브 사역이 진행되게 하소서
•여러 교회가 밀알사역을 선교지로 알고 선교에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하소서.
•7월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합창단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6기 오케스트라 단원이 모여 다음 연주회까지 더 준비되게 하소서.
•계획한 사역이 순조로운 방법으로 진행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이뤄지게 하소서.

재정보고 2026년 4월

| 남가주

■ **INCOME: $116,738.54**

Individuals: $6,002.50 $30 Youn G Ro / $40 Jack C. Kim / $50 Hye Ran Lee / $82.50 Missionary Deborah / $100 Anthony D. & Chun C. Gamble, Ho Myoung & Won Sook Lee, Kyong Ok Lim, Sung Jin Kim / $200 Jaemin Youk, Kyung Won & Sangmi Kang, Mi Sup Lee / $300 David Heung & Jeong Mi Kim, Soon B & Chang Nam Kim, Won H. & Song S. Sunu / $400 JinKyung Choi / $500 Chong Sil Spaven, Kwang Sun & Young H. Lim, Steven Chul Kim / $1,000 Helena Chung, Inju Uyehara

Churches & Businesses: $9,700.00 $5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100 God's Righteousness Church, Han Woo 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 $150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 $200 Beautiful Hill Presbyterian Church, Bethel Korean Church, Choong Hyun Ch(Good Samaritan Fellowship, Korean Young Saeng Presby Church,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Rohthem Presby. Church / $250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 $300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Full Gospel L.A Church, H.D. Grace Church, Irury LLC, Las Vegas Vision Church, New Life Evangelical Mission,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The Church of Joy, The Lord's Community Church, The Love Korean Church / $500 General Metal Recycling Co. / $900 Dong Shin Presbyterian Church of S CA, Korean Church of Orange County / $1,000 Korean Disciples Community Church / $1,550 Irvine New Life Korean Church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101,036.04 $50 Donor Advised Fund / $50 Thursday worship birthday cake / $1,200 Designated for Rent / $6,500 Okjoo Foundation for Tuesday Worship / $2,800 Class AGAPE($300 Joanne Lee, $500 Jong Hee & Young Lee, $1,000 Jin Sook Lee, $1,000 Little Davinci Entrepreneurs) / $22,943 Iris & Na Foundation for Adventure AGAPE / $28,588.04 Camp AGAPE / $17,030 Camp Fundraising / $21,875 Love Festival

■ **EXPENSE: $33,330.78**

Class AGAPE: $2,183.44 $138.25 Class Outings / $1,459.91 Meals & Snacks / $183.09 Materials & Supplies / $404.19 Events & Meetings

Camp AGAPE: $960.99 $382.09 Camp Flyers / $507.40 Camp Supplies / $71.50 Pre-Camp Expense

Love Festival: $1,556.36

Media Mission: $1,688.19 $1,650 M&W Publication / $38.19 PO Box & Return mail

Charitable Supports: $818.55 $500 Periodic Supports / $300 Palm Misson Church / $18.55 Funeral Guest Book

Ministry Expense: $1,116.00 $200 Class Reimbursement / $66 Birthday Cake / $50 Thursday Worship / $500 Tuesday Worship / $300 Shimbang

Fundraising Expense: $6.875.00 $6,250.61 Merchandise / $624.39 Packaging Supplies

Payroll Expense: $9,295.77 $5,803.66 Salaries & Wages / $557.36 Payroll Tax / $840 Employee Benefit / $2,094.75 Housing Support

Admin & Management: $8,174.59 $5,011.23 Rent / $61.03 Woongjin / $332.25 FBM / $797.40 Complete Copy System / $139.92 Telephone & Internet / $276.22 Electricity / $1,131.54 Alliance Fee for America Milal / $212 Office Meals / $213 SBA EIDL Interest

Auto Expense: $661.89 Gas

Transfer Funds to Scholarship Account: $30,000.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63,380.69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16,788.45

■ **Milal Scholarship Finance Report**
INCOME: $10,600.00 <Individuals $1,000: Sophia Yoo Kelly> <Churches & Businesses $600: $300 Irvine Onnuri Church / $3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Specials & designated $9,000: $1,000 Julianne Lee designated for Jonghoon Lee / $3,000 Grace Mission University / $5,000 Sunkyung Han> <Transfer Funds from General Account $30,000>
EXPENSE: $20,161.11 <Class AGAPE $8,125.13: Teachers' Compensation> <Scholarship $12,035.98: $1,800 Collegians / $1,000 Designated / $1,269.73 Goods for Kosovo Milal / $7,066.25 Reserved Ministries Support / $900 Volunteers Aids>
Previous Carry over Balance: $15,523.35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35,962.24

| 북가주

■ **INCOME: $26,130.96**

Individuals: $3,880.00 $40 Aekyung Kim / 50 Sinja Kim, Young Kim, Woosung Lee / $90 SeongjJun Kim / $100 Klepeis Family, Jonathan & Joung Ok Han, Hanna Ko, Manjong & Jeong Kim, Soonhee Park, Soyoung Ahn, David Han&Misoung Shin / $200 Younghun & Jaehyun Choi, Heeja Choi / $300 Jungki Kim & Kyungah Nam, Michael & Dongsook Lee/ $400 Hakchon & Jisun Lee / $500 Mijung Kim & Jungsook Jeong & Moonhee Kim, Daniel Chung, Hyun Cha Eunmi Kim

Churches & Businesses: $4,045.11 $85.11 IBM / $100 Bruce Lee Hair Salon, Full Gospel Central Church, Lord's Grace Chutch in Tracy / $160 Zion Youngnak Church / $200 Luxe Apparel & Gift, The Light of Christ Church, Joosongil Church / $300 Korean Emmanuel P. Church (Milal Mookjang) / $400 New Life Church,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 $600 Korean Central P. Church of SF, Symphony Church, SF Sa-Rang Community Church

Designated Donation: $18,205.85 <Class Agape $800: $100 Jungki Kim & Kyungah Nam, Hae Kim, Jung Beom & Sang Woo Park / $200 Jung-Hong Ahn & Youjin Lee / $300 Emmaus Christian Center> <Tuesday Worship $330: $100 Jungki Kim & Kyungah Nam / $230 Song Kij> <Camp Agape $17,075.85: $1,000 Jungki Kim&Kyungah Nam / $8,475.85 Fundraising / $7,600 Camp fee>

■ **EXPENSE: $23,523.19**

Mission Expense: $18,512.68 사례비(5인) $7,316.30 / 선교활동비 $303.39 / 미주밀알지원 $521.11 / 은급비 $300 / 화요예배 $278.31 / 경조비 $63.34 / 멕시코밀알 $1200 / 사랑의교실

$372.48 / 사랑의캠프 $8,157.75

Admin & Management: $2,383.76 유틀리티 $183.58 / IRS Tax $492.87 / 사무실임대료 $1,400 / 사무실비품 $156.31 / 은행 수수료 $1 / 회계사1Q2026 $150

Auto Expense: $1,410.83 유류비 $409.59 / 수리비(12인승, 7인승) $1,001.24

Media Mission: $1,215.92 밀알&세계 발송비 $338.78 / 밀알&세계 인쇄비 $877.14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6,393.68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9,001.45

| 시애틀

■ **INCOME: $61,831.00**

Individuals: $3,920.00 $30 남숙희, 정은옥 / $50 이영자, 조성배, 박진경 / $100 김해정, 송인숙, 경자혼, 오수미, 노현숙, 송영수, 김상수, 황영자, 함월선, 윤태준&이정주 / $150 김복조 / $200 조천석, 문창선 / $300 김초미 / $400 최지은 / $460 장영준&장아련 / $1,000 이명운

Churches: $4,810.00 $100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자유교회, 벨링햄화평교회, 순복음큰빛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시애틀 물댄동산교회, 목양감리교회, 퓨알럽 한인장로교회 / $150 페더럴웨이 벧엘침례교회 / $200 페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 / $300 선한이웃교회, 시애틀 은혜장로교회, GSM / $360 선한목자교회 / $600 시애틀 한인장로교회 / $800 낮은울타리교회 / $1,000 큰사랑교회

Businesses: $400.00 $300 Fair Ridge Law Firm / $100 임학수 CPA

Designated Donation: $52,701.00 $2,250 SMA & TMA($1,750 회비, $500 이현주) / Fundraising $50,451.00

■ **EXPENSE: $50,227.74**

Mission Expense $3,828.44 / Admin & Management $2,935.02 / Media Mission $1,331.62 / Class AGAPE $992.89 / 상회비 $506.40 / SMA&TMA $2,197.17 / Tax $481.60 / Special event $1,566.79 / Fundraising $34,880.00 / Insurances $512.89 / Mission $300 / Pastoral Visit $394.92 / Retirement Plan $3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52,668.44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64.271.70

| 밴쿠버

■ **INCOME: $5,850.00**

Individuals: $850.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 $30 원소현, 테레사최, 정미영 / $50 이혜영, 이재림, Yeowon Kim(4-5월) / $100 이상현&유혜정 / $200 하준석, 서창성

Churches & Businesses: $3,050.00 $100 헤브론교회(#7436) / $150 사랑의교회/ $200 오로니아, WJD Foundation / $300 삼성교회 / $900 그레이스한인교회 / $1,200 은혜의교회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1,950.00 <사랑의교실 프로그램 $850: $50 오정석, 강향숙 / $100 김계은, 안향숙 / $150 이상화 / $200 윤영로, 곽혜경> <3월 사랑의교실 예배헌금 $380: $20 김도건, 에드윈, 허예나, 서창성 / $50 박수영, 이예담 / $100 이해, 장믿음> <함께걸음콘서트 티켓 $220: $20 김도건 / $100 시영맘, 믿음맘> <designated 500: 코람데오(#4802)>

■ **EXPENSE: $6,214.09**

Payrolls: $3,654.79 사례비(2인)

Mission Expense: $16.07 활동비

Events: $138.60 함께걸음콘서트: 활동비 $39.85 / 미팅 $98.75

Class AGAPE: $145.02 Happy Together Class: 통신비 $61.60 / 줌사용료 $83.42

Admin & Management: $78.20 통신비 $67.20 / 은행 fee $11

Taxes: $532.51 payroll(4월)

Auto Expense: $1,148.90 운행비 $300.88 / 밴보험 $203.71 / 밴 페이먼트 $644.31

Designated Expense: $500.00 코람데오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2,816.66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2,452.57

| 텍사스

■ **INCOME: $9,199.57**

INDIVIDUALS: $635.00 $20 진현주 / $25 방진원 / $50 김태남&이선화, 김희경, 정선혜 / $80 정호영 / $180 박진영 / $180 채경수&임현정

CHURCHES & BUSINESSES: $1,154.57 $4.57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트워스제일장로교회 / $100 라이프교회, 나눔교회 / $150 영락장로교회 / $200 제자침례교회, JDX Mission / $300 주님의교회

DESIGNATED DONATION: $7,410.00 <사랑의교실: $200 무명 / $300 FENY / $460 NORRIYA LLC. / $1,650 The One Hero Project> <아카데미&오케스트라: $100 구본진, Hyun Jeong Je / $600 서부밀알캠프등록비(3인) / $4,000 Open Bank>

FOOD SUPPORT: Escape Bakery, 조이풀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참빛교회, 뉴송교회

■ **EXPENSE: $7,192.92**

MISSION EXPENSE: $4,380.82 Payroll $1,385.25 / housing support $1,700 / 밀알&세계 인쇄비 $405 / 지단상회비 $161.47 / 은급비 $288.02 / 간사사례 $300 / 단장활동비 $141.08

CLASS AGAPE & 밀알아카데미 & 오케스트라: $1,033.53 강사료 $650 / 활동재료비 $105.25 / 단장식사 $92.01 / 교사식사 $90.64 / 연주회관련물품 $95.63

ADMIN & MANEGEMENT: $1,778.57 장소사용료 $200 / 카드 등 재정관련 수수료 $33.79 / 통신비 $100 / IRA tax $229.50 / NTTA toll $240 / Gas $286.20 / Insurance $100 / Utility $253.35 / 우표구입 $85.73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5,585.83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7,592.48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굴,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 실행단원( ) 후원단원( ) 월 $5( ) $10( ) $20( ) $30( ) $50( ) $100( ) 그외 $( )

서명: _____ 날짜: _____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 | 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밝은예배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7: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현재는 Zoom으로 드리는 월례기도회로 대체)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동부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랜스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토랜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통합반	매주 토 오후 2:30 ~ 오후 6:30	남가주밀알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김정기 단장) | milalnca.org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산호세새소망교회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산타클라라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장영준 단장) | 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이상현 단장) | 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벤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 단장) | txmilal.org | facebook.com/texasmilal

2828 E. Trinity Mills Rd, #360, Carrollton, TX 75006 / Tel :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2828 E. Trinity Mills Rd, #300, Carrollton, TX 75006
목요 밀알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오후 4:00	달라스우리교회	2633 Royal Ln, Dallas, TX 75229
밀알청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5:00 ~ 오후 6: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톤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